

2016년도 제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16. 9. 30(금) 11: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 1실

2016년도 제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19작품으로, 초연부문 13작품, 재연부문 6작품이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작곡가들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다. 또한, 아창제가 작곡 콩쿠르가 아니며 기획연주회를 통해 창작곡을 집중적으로 소개함을 염두 해 두었다.

작곡가 부문과 지휘자 부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기획연주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작품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와 지원신청서,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 자료로 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지원 작품들의 작곡경향이 안정화되었으며 국악기 중심의 연구 분위기가 진작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악기 활용에 많은 작곡가가 고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소리 찾기 보다는 현실적 반응에 너무 민감한 느낌이다. 악보 놀음이 아닌 소리 놀음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실험적이며 철저히 계산된 작품은 예년에 비해 지원 작품이 적어 아쉬운 점이 있다. 국악 관현악에 쓰이는 소재, 재료의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보다 신선한 내용의 작품과 창의적인 상상력을 기대한다.

청중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는 이때를 국악 작곡가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제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심의위원 일동